



#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 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67 호

2010년 8월 31일

발행인: 변 주 선

편집인: 서 한 생

home page:

www.musun.or.kr

e-mail:

msusun@hanmail.net

100-130 서울 중구 순복동 215 바리엔트 1807호 전화: (02)6399-6500 / (02)720-8116 FAX: (02)720-8117

## 제2회 청관대상 시상 및 2010년 정기총회



▲ 청관대상 수상자



▲ 감사패 전달

##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체육의 역할

류榮敏(柳榮敏) 62  
고려대 명예교수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원천 수출국이며 세계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 개최국이자 국제 협력 기구 즉 OECD의 개발 원조 위원회(DAC)에 공식 가입된 전형을 겪은 절대 빈곤의 후진국이 국제원조로 연명하다 원조 공여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국가인 동시에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를 유치한 자랑스러운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질서와 문화의식, 나눔과 배려 등 사회 전반의 질적인 선진화는 OECD 가입국가 중 뒤에서 세 번째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크스 헤버는 한 국가, 사회의 발전과 미래는 바로 그 나라 국민의 도덕성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요즘 사회 곳곳에서 '법치 원칙'의 실종을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 전에는 그래도 병역 면제, 위장전입, 위장직 특목고 입학 같은 짓을 부끄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주역구구식 일평종말 아니면 말고 같은 사교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국가와 사회가 치료가 저의 불가능한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독재와 빈곤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의 현대사는 부끄러운 역사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은 비탄하면서도 박헌의 3대 독재 세습에 대해선 침묵한다. 올해는 공산주의 북한이 자유주의 남한을 침공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위상면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비어는 이렇게 적혀있다.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로 갔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아무런 연고도, 조건도 없이 자유 민주주의의 존엄성과 우방을 지키기 위하여 2.2%의 높은 위험에도 목숨을 내 걸렀는데 2년 전 광주명 촛불 세력은 1억분의 1을 갖고 난동을 부렸다.

다육이 민족의 미래를 걸어질 젊은이들이 불바다, 전면전,

무자비한 타격 따위의 심리전에 기죽어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고 그저 당장에 편안한 '달콤의 현실'을 택한다면 미국 국민들에게 너무 미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비변대적인 교육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5,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그 원인과 해법을 알아본다.

우선 가장 큰 원인은 오랫동안 유포의 낮은 전통과 일본 식민지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의 의식 구조가 머리로는 하는 일을 귀하고 고상한 것이고 몸으로 하는 일은 천한 것이라는 "능력"과 "입적"보다는 형식과 가문과 학벌을 중시하는 귀족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역체를 고부 균형 있게 갖춘 인간을 육성해야 할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명문 대학 인기학과 입시에만 급급하여 지식교육에만 편중하여 각급 학교가 영수 학원식 교육을 자랑하고 있다. 이를 방지한 교육 당국의 잘못된 교육 정책과 교육 제도로 야기된 학교 붕괴가 야기되었음은 자명한 일이다. 사실 붕괴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인성 발달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중등교육의 핵심영역인 체육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마저도 시험 준비에 약영향을 미친다거나 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에 가서 피곤해 할까봐 자습시간으로 변치 운영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타난 학교 체육의 입탈과 실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제도는 어느 나라에서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더욱 그렇다. 교육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사회문화, 계층 간 갈등, 교직자의 이해관계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로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땅값이 비싼 강남의 중고등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립 학원의 작은 땅 속이 다다다다 불어있는 최상위 달남계까지 앉아 과외 학습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고 있다면 가슴이 답답하고 역감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국력은 경제 성장과 홍보만으로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치 국가도 경찰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교육철학자 하이데거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3번으로 계속)

## 인사의 말씀

초하의 더위가 마치 한여름에 와있는 듯 합니다.

신후배 동문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5월 28일의 사범대학의 정기총회에서 저를 제36대 사범대학 동창회장으로 재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또한 더욱더 동창회 일을 열심히 하라는 재책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동문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2년 동안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원진 여러분들과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동창회의 일을 맡아보면서 동문간의 참여와 화합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부딪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꾸준한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신후배 동문님들께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소중한 경험을 기반으로하여 앞으로 총회에서 계획한 사업을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뜻을 모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만 움직인다면 동창회의 발전은 어렵습니다. 신후배 동문들의 지속적인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을 기대하며 언제나 동창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동문들의 건강과 대내 행복하심을 기원합니다.

2010. 6. 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최창 변 주 선

(2면에서 계속)

육성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등교육의 목적도 당연히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인격의 함양과 장래 사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일이다. 오늘날과 같이 지식과 기술, 살아가는 방식이 급변하고 개인의 삶과 지평이 넓어지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배우고 평생 배울 수 있는 습관을 붙여주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국가와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는 국민정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체육이라는 진리를 서강대학교의 조윤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중앙일보 논단에 기고하였다.

“체육이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심체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기에 규칙을 지키는 것을 배우고 끈기와 협동, 자기 절제를 배울 수 있다. 이는 사실 학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공부육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19세기 대영제국을 건설하게 된 원동력은 중등 사립학교의 스포츠 교육에서 나왔다고 한다. 럭비, 축구, 크리켓 같은 단체 경기를 통해 신사다운 행동과 자기희생 정신을 습득하도록 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와 더불어 어떻게 패하는가를 배우는 것, 또한 초기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자질을 기우는 것은 스포츠전, 공부

전, 돈벌이전 어느 영역에서나 중요하다.

엘링턴 장군은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이튼(Eton)스쿨의 운동장에서 경위되었다’고 했으며 19세기 말 해로(Harrow)의 교장이었던 엘턴은 ‘용기, 여너지, 끈기, 자기통제, 기율, 협동, 단결 정신 등은 단체 경기를 통해 자라고 평화 시나 전쟁 시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자질들이다. 대영제국이 있게 된 것은 스포츠 교육 덕분’이라고 하였다.

만약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하루 한 시간간이라도 책 읽는 습관을 익히고,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와 협동의 습관,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와 습관을 익힌다면 지금의 교육 제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제2회 淸冠大賞

師道賞에 崔泰祥 前 경복고 교장  
學術賞에 李瑞鎔 서울대 명예교수  
功勞賞에 崔容準 (株)天才教育 회장

지난 5월 28일(금) 2010년도 정기총회에 앞서 거행된 제2회 淸冠大賞은 師道賞에 崔泰祥(歷史 53入), 學術賞에 李瑞鎔(地理 59入), 功勞賞에 崔容準(數學 61入) 등문이 수상하였다. (자세한 공적내용은 본회 196호와 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 2010년 정기총회

제36대 회장에 변주선 현회장 재선임

본회는 지난 5월 28일 금 프레스컨트호텔에서 2010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결산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본회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동안은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회계개정하였다. 그동안 많은 회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정무회제 연도와 맞추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정기총회도 2011년부터 2월 하순경에 가장 예정이다.

한편 일기 반교된 일련 선출에서는 현 卞柱山 회장에게 그동안 추진 중인 사업들을 계속하여 마무리 지을 것을 주문하며, 36대 회장으로 재선임하였다.

이날 총회에는 정원희 전 국무총리, 이상주 부총리, 임광수 서울대 총동맹회장, 손일근 삼일부회장, 강신주 전 청광의 회장, 윤용희 청광의 회장, 이원희 서울시 교육감 임후보자, 김경희 전 서울시교육감 직무대행, 김성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그리고 최태상 고문, 이기희 서울대 명예교수, 최홍준 전교육회 회장 등 청관대상 수상자와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 會長 動靜

(5. 1. ~ 7. 31.)

10. 5. 6. 방언의 총회 참석
14. 師大 師團會 참석
28. 동창회 정기총회, 청관대상 시상
6. 22. 師友會 참석
7. 1. 상임이사, 각과 동문회장 회의
5. 창사코리디컬업 회장 이·취임 참석
9. 박병선 박사 환송식 참석-서울대 총장실
19. 이강무 서울대 총장 이임식 참석
20. 동창회관 전임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5. 상임이사, 각과 동문회장, 동회회장 연석회의 개최

## 동창회 來訪 人士

(5.1.~7.31.)

- |              |                  |
|--------------|------------------|
| 金鶴淵(教育 - 53) | 전 인하대 교수         |
| 崔泰祥(歷史 - 53) | 본회 고문            |
| 李相淵(敎行 - 56) | 본회 고문            |
| 鄭元鎔(生物 - 58) | 전 한국외대 총장        |
| 李鍾昭(敎育 - 59) | 전 본회 감사          |
| 俞千熙(敎育 - 60) | 전 구일고 교장         |
| 許泰辰(敎行 - 60) | 전 한국교총 사무국장      |
| 朴炳賢(敎心 - 60) | 전 부산대 교수         |
| 姜義貞(英語 - 60) | 전 여의도여고 교장       |
| 李 錫(數學 - 60) | 전 대진대 교수         |
| 金末順(物理 - 60) | 전 여성부 회장         |
| 李壽子(家政 - 60) | 명지대 명예교수         |
| 朴柱烈(敎育 - 61) | 단국대 석좌교수         |
| 柳古子(敎心 - 61) | 여성문명의 회장         |
| 李澤溥(敎育 - 61) | 미래연합 당대표         |
| 林東浩(敎育 - 61) | 전 서울대학교원금관리공단 상무 |

- |              |                        |
|--------------|------------------------|
| 樞澤實(敎行 - 61) | 전 중앙일보 이사              |
| 金英吉(敎育 - 62) | 전 상동고 교장               |
| 李淳樞(敎育 - 62) | 세무사                    |
| 鄭清喜(體育 - 62) | 한국스포츠심리연구원 회장          |
| 金慶洙(國語 - 63) | 전 중앙대 교수               |
| 崔善植(地理 - 63) | 지리 교육자 회장, 전 이화여대 교수   |
| 鄭應熙(體育 - 63) | 체육 교육자 회장, 전 서울대 교수    |
| 朴景賢(國語 - 64) | 경향대 교수                 |
| 徐安容(國語 - 64) | 인선 일생방송 회장             |
| 金華愛(生物 - 64) | 전 여성부 총무               |
| 俞貞淑(體育 - 64) | 전 본회 감사                |
| 高潤聖(英語 - 65) | 영어 교육자 회장, (주)마젯에 대표이사 |
| 崔英子(英語 - 65) | 여성문명의 총무               |
| 崔基錫(體育 - 65) | 전 자강고 교장               |
| 金範基(物理 - 66) | 물리 교육자 회장, 한국외대 교수     |

##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본회가 설립한 淸原學會와 張定植(歷史, 51주) 동문이 이사장으로 있는 梵宗學苑(佛宗)은 8월 20일 母校 교수회의실에서 사립대 學長團과 본회 會長團이 참석한 가운데 師大 재학생 15명에게 2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梵宗學苑의 張定植 이사장은 지난 1학기에 10명의 재학생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장학금을 이번 학기부터는 10명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장학금 수급자 명단)

▶ 청원장학생

성명	학과	학년	등록금(예원)
심민우	특이교육과	4	2,537,000
최은경	사회교육과	4	2,537,000
서수지	지리교육과	4	2,781,000
기준경	수학교육과	4	3,087,000
임고은	생물교육과	3	3,179,000

▶ 범은장학생

성명	학과	학년	등록금(예원)
이원웅	교육학과	3	2,611,000
장성민	국어교육과	2	2,537,000
이지형	영어교육과	4	2,537,000
경다워	불어교육과	4	2,537,000
홍상혁	역사교육과	4	2,537,000
양해성	윤리교육과	4	2,537,000
김종필	물리교육과	3	3,179,000
박재남	화학교육과	4	3,087,000
전태환	지구과학교육	4	3,087,000
홍예리	체육교육과	4	3,087,000

## 동문 친목 수련대회

홍천 하이트 벵쿠 공장 견학 및 인근 관광

- 날 짜: 2010년 10월 6일(수)
- 장 소: 강원도 홍천
  - 한서 남궁역 유적지 탐방
  - 하이트 벵쿠 공장 견학 및 시음
- 인 원: 신청순 80명(버스 2대분)
- 회 비: 10,000원
- 기 타
  - 참가자 전원에게는 中食 및 紀念品이 제공됨.
  - 출발 장소 및 시간은 본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공고하고, 신청자에게는 개별 통지함.
- 신청방법: 아래 제과목 입금 후 주소, 성명, 학과, 입학년도, 전화, E-mail 등을 동창회로 연락바람.  
(하나은행) 221-010158-88607 변주선
- 연락처: 전 화) 6399-6500  
FAX) 6399-6501  
E-mail) smuesa@hanmail.net

李圭錫(地球 - 66) 지구과학과 회장,  
학교교육지원본부장  
洪泰權(國語 - 67) 국어교육과 회장,  
명지전문대학 교수  
崔鉉聖(社會 - 67) 사회교육과 회장,  
전 강원대 총장  
申正淑(化學 - 67) 화학교육과 회장,  
세종과학고 교장  
柳子孝(德語 - 68) 국제번역팀 부이사장  
方在旭(生物 - 68) 생물교육과 회장,

송남대 교수  
李柄好(英語 - 70) 서울국제고 교장  
李洪子(國語 - 70) 서울대사대 부여중  
교장  
李元熙(國語 - 71) 전 한국교총 회장  
高永基(體育 - 72) 안양전문학교 학장  
金京會(社會 - 74) 전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학  
金用真(英語 - 75) 영일교육자 총무,  
승실대 교수

朴英植(英語 - 76) 변호사  
盧在賢(國語 - 77) 중앙일보 논설위원  
朴俊彦(英語 - 77) 승실대 교수  
蘇原泰(英語 - 77) 경향신문 국제부  
선임기자  
金鳳來(化學 - 85) 화학교육과 총무,  
세종과학고 교사  
李聖珍(教育 - 53) 한국행동과학 연구  
소장

구 월	총무부	조직부	사업부	대의협력부	여성부	출판부
'10 05	- '09년 결산 -제56차 정기총회 -제2회 청관대상 시상	-조직상황 점검	-사업계획수립		-여성동문 임원회의	-회보166호 발행 (5.1)
06	-상임이사회			-본회활성화 발전홍보	-조직강화 계획수립	
07		-회원이동 상황 파악 -신입회원 환영	-청관장학금 지급			-회보원고준비
08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			-회보167호 발행 (8.31)
09	-김영주회장단 회의					
10		-학과동문 회담 회의	-동문친목 수련대회 -바둑대회		-여성동문 임원회의	-회보원고준비
11	-고문회의 -김영주회장단 회의 -송년회준비			-송년회 홍보 및 섭외		-회보168호 발행 (11.1)
12	-송년회 -연하장발송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청관대상 후보자 신청 마감		-송년회			
'11 01	-신년교례회 -2010년도 결산 -청관대상 후보자 선정 -정기총회 준비		-장학금지급 대상자 선정			-회보원고준비
02	-제57차 정기총회 -제3회 청관대상 시상	-신입회원환영	-청관장학금 지급			-회보169호 발행 (3.1)
03	-김영주회장단 회의	-회원이동 상황 파악				
04	-고문회의		-친목동산대회	-정기총회 홍보 및 섭외	-여성동문 정기총회	-회보원고준비

(1) 동창회

수입

항 목	2009년 예산		2009년 결산		2010년 예산	
	예산액	결산액	증 감	예산액	증 감	
회 비	32,000,000	38,941,000	▼ 59,000	32,000,000		
일반 회 비	10,000,000	7,471,000	▼ 2,529,000	10,000,000		
이 사 회 비	10,000,000	7,800,000	▼ 2,200,000	10,000,000		
평 생 회 비	10,000,000	16,400,000	▲ 6,400,000	10,000,000		
입 회 비	2,000,000	2,000,000	▼ 1,730,000	2,000,000		
찬조금	40,000,000	15,369,000	24,830,000	30,000,000	▼ 10,000,000	
이자수입	100,000	217,341	117,341	300,000	▲ 200,000	
기 타	5,100,000	12,180,618	▲ 7,080,618	8,100,000	▲ 3,000,000	
행 사 관 가 비	5,000,000	9,401,660	▲ 4,401,660	5,000,000		
명 부 관 대 태	100,000	0	▼ 100,000	100,000		
잡 수 입	0	2,778,958	▲ 2,778,958	3,000,000	▲ 3,000,000	
전기이월금	9,014,268	9,014,268		1,250,917	▼ 7,763,351	
합 계	86,214,268	86,214,268	▼ 17,632,041	71,650,917	▼ 14,563,351	

지출

항 목	2009년 예산		2009년 결산		2010년 예산	
	예산액	결산액	증 감	예산액	증 감	
간행물비	15,000,000	8,873,130	▼ 6,126,870	8,000,000	▼ 7,000,000	
회 보 발 송 비	10,000,000	6,173,130	▼ 3,826,870	6,000,000	▼ 4,000,000	
회 보 발 송 지 역 비	5,000,000	2,700,000	▼ 2,300,000	2,000,000	▼ 3,000,000	
친목행사비	20,500,000	9,262,950	▼ 11,237,050	11,000,000	▼ 9,500,000	
정관대상사업비	5,000,000	3,750,000	▼ 1,250,000	5,000,000		
등 산 대 회 비	500,000	664,280	▲ 164,280	500,000		
친목수련대회비	3,000,000	2,414,000	▼ 586,000	3,000,000		
경 조 비	2,000,000	2,399,670	▲ 399,670	2,000,000		
기 념 태 비	100,000	25,000	▼ 75,000	500,000	▲ 400,000	
휴가명대이행사	10,000,000	0	▼ 10,000,000	100,000	▼ 9,900,000	
지원사업비	4,100,000	3,399,000	▼ 701,000	4,100,000		
졸업생표창비	300,000	199,000	▼ 101,000	300,000		
사 은 행 사 비	800,000	0	▼ 800,000	800,000		
지 원 사 업 비	3,000,000	3,000,000		3,000,000		
회 의 비	19,000,000	28,597,440	▲ 2,597,440	17,100,000	▼ 1,900,000	
경 기 총 회 비	4,000,000	4,202,180	▲ 202,180	4,000,000		
송 년 회 비	10,000,000	10,072,580	▲ 72,580	10,000,000		
신입회원환영비	2,000,000	5,500,000	▲ 3,500,000	100,000	▼ 1,900,000	
상임이사회의비	2,000,000	851,700	▼ 1,148,300	2,000,000		
기 타 회 의 비	1,000,000	970,960	▼ 29,040	1,000,000		
거 마 비	13,200,000	13,200,000		14,890,000	▲ 1,690,000	
관 리 비	5,000,000	6,000,000	▲ 1,000,000	4,000,000	▼ 1,000,000	
사무비	8,700,000	5,158,730	▼ 3,541,270	6,700,000	▼ 2,000,000	
통 신 비	3,000,000	373,050	▼ 2,626,950	1,000,000	▼ 2,000,000	
사 무 용 품 비	500,000	365,260	▼ 134,740	500,000		
미 품 비	3,000,000	2,313,420	▼ 686,580	3,000,000		
인 채 품 비	1,200,000	1,107,500	▼ 92,500	1,200,000		
잡 비	1,000,000	1,090,560	▲ 90,560	1,000,000		
예 비 비	0	0		5,770,917	▲ 5,770,917	
합 계	85,600,000	67,271,300	▼ 18,328,690			
차기이월금	64,268	1,250,917				
계	86,214,268	68,522,217	▼ 17,692,041	71,650,917	▼ 14,563,351	

## (2)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수입

항목	2009년 예산		2009년 결산		2010년 예산	
	예산액	결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기부금	50,000,000	26,500,000	▼ 23,480,000	50,000,000		
이자수입	85,000,000	62,463,587	▼ 22,536,413	40,000,000	▼ 45,000,000	
전기이월금	2,287,942,001	2,287,942,001		2,272,247,898	△ 54,805,897	
합계	2,352,942,011	2,306,905,588	▼ 46,016,413	2,362,247,898	△ 9,305,897	

지출

항목	2009년 예산		2009년 결산		2010년 예산	
	예산액	결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인건비	17,340,000	28,900,000	△ 11,560,000	18,630,000	△ 1,290,000	
급료	12,240,000	12,240,000		13,080,000	△ 840,000	
상여금	5,100,000	5,100,000		5,450,000	△ 350,000	
퇴직금	0	11,560,000	△ 11,560,000	100,000	△ 100,000	
사무비	3,700,000	777,490	▼ 2,922,510	3,700,000		
회의비	1,000,000	60,000	▼ 940,000	1,000,000		
통신비	1,000,000	10,790	▼ 989,210	1,000,000		
사무용품비	1,000,000	552,900	▼ 448,100	1,000,000		
인쇄물비	500,000	0	▼ 500,000	500,000		
도서비	200,000	155,000	▼ 45,000	200,000		
동참회지원비	0	5,000,000	△ 5,000,000	5,000,000	△ 5,000,000	
특별관조금	0	5,000,000	△ 5,000,000	5,000,000	△ 5,000,000	
예비비	0	0		3,000,000	△ 3,000,000	
합계	21,040,000	34,677,690	△ 13,637,690	30,330,000	△ 9,290,000	
차기이월금	2,381,902,001	2,272,247,898	▼ 59,654,103	2,381,937,898	△ 15,897	
계	2,352,942,011	2,306,905,588	▼ 46,016,413	2,362,247,898	△ 9,305,897	

## (3) 청관장학회 (09.11-09.12.31)

수입

(단위: 천원)

내용	예산	결산	증감
동참회전입금	600,000	600,000	
이자수입	60,000	36,965	23,034
이자소득세 환급금	9,000	2,508	▼ 6,492
기타수입		6,000	△ 6,000
전기이월금	301,000	304,830	△ 3,830
합계	970,000	950,365	19,635

지출

(단위: 천원)

내용	예산	결산	증감
운영비	15,000	7,477	▼ 7,523
장학금지급	20,000	21,957	△ 1,957
회보발간비	20,000	11,521	▼ 8,478
동참회행사지원비	10,000	4,145	▼ 5,855
총회, 상년회, 수련회	6,000	4,145	▼ 1,855
기타행사	4,000	0	▼ 4,000
예비비	5,000	0	▼ 5,000
합계	70,000	45,101	▼ 24,899
차기이월금	900,000	905,364	△ 5,364
총계	970,000	950,365	▼ 19,635



### 학부모 초청 행사

4월 24일(토) 오전 10시에 교육정보관에서 사범대학 학부모 100여명을 초청하여 대학 홍보 및 강연 시행을 하였다.



### 스승의 날 사은모임

5월 14일(금) 12시 교수회관에서 명예교수 40여명을 초청하여 스승의 날 사은모임을 가졌다. 이날 오신 은사님들께 사대와 중량회가 준비한 선물들도 나눠드렸다.



### 6·25 참전 동문 현화식

6월 1일(화) 오전 9시에 10동 내정에서 교육학과와 역사교육과는 6·25참전 동문 기념 현화식을 개최하였다.



### 하계 교수 학사협의회

6월 22일~24일 제주에서 학장단 및 교수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범대학 정기발전계획 및 현안 토의를 가졌다.



### 국제학술회의 개최

서울대 대외협력본부(본부장 국제교육과 윤희원 교수) 주최로 2010년 6월 2일부터 4일까지 '연구중심대학 학부교육의 지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6월 3일(목) 11층 교수회의실에서는 'The balance between teacher training and education research' 주제로 사범대학만의 분과회의가 열렸다. 영어교육과 안현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육학과 백순근, Toronto 대학 교육대학 학장의 발표가 있었다. 콜라교육과 송진윤, 교육학과 Lynn Bon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 청사로타리

◆ 새 회장에 임명장(86인) 동문

청사로타리클럽 제9대 회장에 임명장 서울대 명예교수가 7월 5일(월) 취임했다. 청사로타리클럽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서울대 동문들로만 결성된 클럽으로, 인류를 위한 봉사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친목단체이다.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임기인 총무이사에는 고영기(88 - 72인 / 한양전문학교) 학장이, 재무이사에는 박준언(英 - 77인 / 숭실대) 교수가 봉사한다. 우리 사범대 동문은 누구나 청사로타리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클럽에 가입을 원하는 동문은 고영기 총무(010-6713-8869) 또는 본 동창회(6399-6500)로 연락하면 가입을 연결해 준다.



## 회계년도 변경에 따른 동창회비 납부 안내



지난 5월 28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에 따라 동창회 회계년도는 그동안 시행해 오던 '5월 1일부터 익년 4월 말일'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말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동창회비 납부기간도 금년 12월 말일까지로 조정되었음을 공고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國語教育科

### ◆ 시은의 날 겸 <국어교육과 60년사> 발간 기념회 행사

지난 5월 7일(금)에 2010년 2월의 날을 겸한 <국어교육과 60년사> 발간 기념회 행사가 호암고수회관에서 열렸다. 국어교육과는 창과 60돌을 맞이한 2007년 9월부터 동문회의 협조를 받아 시교를 수집·정리하여 올해 4월 마침내 <국어교육과 60년사>라는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 날의 기념회는 2월의 날 행사와 함께 이루어져, 동대의 동문회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들과 학과 교수님, 학과 학부생·대학원생들이 함께 자라난 가운데, 선추태가 함께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 2010 국어교육과 학술답사

지난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3일간 충청북도 피산 일대에서 국어교육과 학부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경기 학술답사가 진행되었다. 김상사(김유신 장군 사당), 진천 농다리(중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다리), 청주 고인쇄 박물관, 흥명의 생가, 밀주사, 오경환 문학관 등을 다니면서 국어의 내면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문화를 경험하고, 피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언어시대, 생활문화, 전통문화와 관련된 설문지를 실시하면서 국어교육의 현황을 꼼꼼히 채취하였다. 이번 답사에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하여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석하여, 국어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英語教育科

### ◆ 정기총회

영어과 동문회는 5월 30일(일) 관악산 (술밭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였고 편소리 초대가수의 공연을 감상하며 여흥을 즐겼다. 이 자리에서는 또한 75학번 동

기생들이 졸업 30주년(1979~2009)을 기념하여 모교 영어과에 발전기금 990만원을 기탁하였다.



### ◆ 친선 골프대회 개최

영어과 동문회는 8월 18일(수) 수원(기흥) 상록골프장에서 친선 골프대회를 갖는다. 관심 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연락처 010-9926-3600 김용진 총부)

### ◆ 동문소식

- 1) 신문수 동문(서울대 영어과교수)의 저서 <다자의 초상: 인종주의와 문학> (김문당)이 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 2) 이종환 동문(경일교대 영어과교수)이 2010년도 무학학술상(서울대 미국학 연구소 주편을 수상하였습니다. 무학학술상은 미국학연구소를 창설하신 고 김홍은 교수를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상으로, 지난 1년동안 <미국학>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최우수논문 한 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 3) 고동준 동문(경동고교사)이 지난 5월 학교법인신일학원에서 수여하는 <신일수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社會教育科

### ◆ 2010 사회교육과 춘계 동문동산대회

사회교육과 춘계동문대회장: 최현섭, 67학번은 지난 5월 8일(토) 가족 동반 관악산 동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동산대회에는 52학번부터 03학번까지 세대에 걸친 동문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가족을 동반한 40여명이 함께한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 사회과 흡수

본 학과의 명예교수님이신 이영기 교수님께서 지난 2010년 6월 29일 노원(향년 88세)으로 별세하셨다. 이영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학과 장님과 함께 사회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셔서 지난 1999년 정년퇴임하셨다.

■ 化學教育科

◆ 동문의 임원과 모교 은사님과의 만남

지난 2010년 4월 15일(수) 18시에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화학교육과 동문의 임원과 모교 은사님과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동문의 활성화 방안과 사대 화학교육과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신장숙 회장님께서 수고하시는 임원진과 모교은사님에게 소중한 선물(예쁜 티셔츠)을 주며 격려해주었다. 참석하신 임원진과 모교은사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원진 - 남장철 고문, 신장숙 회장, 오두환, 홍지준 부회장, 정문호 감사, 김봉태 총무

모교은사 - 채희권(무기화학), 홍준기(분석화학), 정대홍(물리화학) 교수



祝 當 選

- ◎ 羅根炯 인천시 교육감  
(數 • 58入 : 前 인천시 교육감)
- ◎ 李秀英 인천시 의원(교육위원)  
(體 • 66入 : 前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 ◎ 安重現 경기 과천시 의원  
(體 • 77入 : 前 서울사대부여중 교사)
- ◎ 梁基大 경기 광명시 시장  
(體 • 81入 : 민주당 당대표 언론 특보)
- ◎ 鄭炫台 경남 남해군 군수  
(國 • 81入 : 청와대 NSC행정관 남해군수)



동창회관 건물 구함

본회는 동창회관 및 임대사업용 건물을 구합니다.

1. 자금 규모: 30억원 내외
2. 건물의 조건: 동창회관 및 임대사업용으로 적합한 건물
3. 본회 소장양식(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기재하여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제출한 후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02-6399-6500)
4.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접수치 않습니다.
5. 계약이 성사될 경우 소장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6. 제출처: 주소 - 서울 중구 순화동 215 바비영3차 1807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전화 - 026399-6500  
FAX - 02-6399-6501  
E-mail - snueas@hanmsil.net

환영

동창회 신입회원 졸업을 축하하며, 동창회의 신규회원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동창회 회원 일동

《학 사》	박계영	이유민	이소라	윤종훈	김태성	오현아
교육학과	김은지	이정은	교육학과	이주영	우용균	국어교육과
문명전	유은지	이진경	(교육공학전공)	외국어교육과	채욱교과과	(한국어교육)
장성민	홍지선	이향수	이혜연	(불어전공)	권현수	이명희
한지혜	김현주	채영재	교육학과	박예상	김경수	아수미
국어교육	백시교육	지구과학	(교육상담전공)	민우민	부준석	외국어교육과
안상미	시현별	연재균	박다운	이수연	김건하	(영어교육)
김상지	김병호	김태희	윤정은	외국어교육과	김명희	장서경
김민규	송승아	최정은	최도은	(독어전공)	소재훈	정윤정
김병민	설유경	박지은	유미연	김소현	송영호	사회교육과
김홍서	김상숙	이지혜	김하나	최나영	유병욱	(일본사회전공)
박준설	김지영	최원분	박소은	사회교육과	홍수민	김명신
송홍환	윤보현	채욱교육	교육학과	(일본사회전공)	협동과정	사회교육과
김민선	윤명선	(명성교육전공)	(명성교육전공)	홍미영	(특수교육전공)	(지리전공)
김수희	유리교육	차성환	이재준	조희진	김원호	박병서
김은파	김미영	정윤석	김인재	사회교육과	김희주	권현주
이원기	박지연	정순우	문보국	(역사전공)	협동과정	박종민
이은지	이정현	윤미희	신기우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최영진
이윤숙	김라영	성문주	최민우	협동과정		국민유리교육과
차경미	이주하	협동과정	허찬솔	사회교육과		
영어교육	수학교육	(미술교육전공)	홍예경	(지리전공)	《학 사》	박영하
이준규	김민재	강민정	도형주	정원영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김지영	김성민	정택우	문세진	이현주	김재홍	김신아
이재진	김한솔	협동과정	임현진	홍성원	송민호	수학교육과
김지훈	하형도	(가정교육전공)	권기영	윤리교육과	이동환	이정연
이주양	서지환	김정현	유승희	박승희	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이조은	우안성	안수환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물리전공)	(물리전공)
전행현	박진희	염대원	(국어교육전공)	홍지연	김재호	이정원
정하나	이유미	《학 사》	노자연	장혜경	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
허윤	최영근	교육학과	백경이	이지윤	(생물전공)	(생물전공)
고수현	한수연	(교육행정전공)	장민규	과학교육과	박기서	정주혜
고의현	황지연	박인철	장효경	(물리전공)	《학 사》	체육교육과
김은영	윤리교육	위은주	장미	김지원	교육학과	김수숙
김예민	정성훈	장정	국어교육과	김형준	김은옥	최지선
박미연	정영호	장민윤	(한국어교육전공)	윤필화	정민희	최병권
정민지	장호철	양명화	장미	최은정	이영환	김재우
장동철	김종인	박예영	국어교육과	이성준	송선영	전태영
불어교육	김효정	이소연	이성준	이소아	이정영	협동과정(미술교육)
이미선	화학교육	정혜주	교육학과	이승현	강영숙	박소영
차동선	(교육학전공)	김혜수	(교육학전공)	김윤정	허은경	협동과정
최현희	이승현	김정하	김정하	송경화	이은아	(특수교육전공)
독어교육	생물교육	김지영	박정영	생물교육	황재원	사동원
장정혜	이정민	김지영	홍예영	김신수	장여주	협동과정
김다혜	권오민	안선영	안선영	이정현	국어교육과	(환경교육전공)
이수정	김혜민	이경	이경	이충현	(국어교육)	김유근
채정민	박상준	이정희	이정희	과학교육과	구명산	
사회교육	이민희	박은정	박수진	(지구과학전공)		
민정훈						

##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朴 景 賢 (國語·64)  
경찰대 교수

0인을 간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외국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신하게 꾸짖거나 때를 든 것이 인지되던 학교에서 그 부모를 치안 당국에 고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자주 말명을 부리는 자식을 따끔하게 나무라긴 해야 하겠는데, 현지 법으로는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서 아이를 잘 구슬려 한국 여행을 함께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실컷 자식을 두들겨 뺐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정형 '비로장머리 없는 젊은이들의 천국'이 되어 가는 것 같다. 버스나 전철 칸에서 빈 자리가 생기면, 사람들 틈을 제법리 비집고 나와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아이들을 심심치 않게 본다. 노약자석은 '노' 권하고 '약' 식별은 '자' 없이 앉는 자리라는 우스갯소리를 증명이라도 하듯 현란스럽게 정가한다. 지하도나 육교의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아이와 어른이 서로 마주치면 어른이 비켜 주어야 하는 형편이다. 거리에서 젊은이와 어른이 마주쳐 지나갈 때 두 어른 쪽에서 머뭇머뭇하다 양보하고, 나머지 작은 쪽은 거리낌 없이 양길을 가로질러 지나가기 일쑤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가다 내릴 때가 되면 젊은 양로로 나와서 먼저 내리는 청년 남녀들이 정정 뉘어나고 있으며, 어른들이 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뛰어나오거나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가족이나 친지 등과 같이 아는 사람인 경우는 비교적 예의를 지키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제멋대로인 젊은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위를 일부 젊은이들은 당연하고 자전스러운 여성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오호라 성년 경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사회의 변질된 어른들의 생각이다. '고양 내석들', '물상스한 놈들' 등등 현상에서 준엄하게 꾸짖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이런 반인 반종의 사회요 민주화였는데, 뭐' 하며 지나치게 너그러운 분들이 있기도 하다. '웃을거리나 없냐. 맞아죽을지도 모릅니다. 못 본 거로 합시다.' 하며 미러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겠다는 분들도 있다. 혹은 '그러니까 애들 아니오', '난, 우리친 애들과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고 있어

요' 하는 것이 서구적이고 민주적인 교육관인 양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분들이 개살배 걱정이다.

무엇이 서구적이고 민주적인가. 사실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1시간 이상 정가되어행이 아니면 버스나 기차에서 빈 자리가 나도 젊은이들은 앉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도 자리가 비면 양로 어른들을 세워 놓은 채 앉는 법은 드물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어른

이 양아 있는 일을 치루치지 못한다고 한다. 영국의 어르신들은 두 팔로 턱을 괴고 앉아 있는 아들에게 뒤통치로 사정없이 한방 먹이는 것이 상식이며 부모가 외출했다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은 잠을 자서는 안 된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모든 아이들의 50% 정도가 하루에 한번쯤 어른들에게 꿀밤을 맞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엄하다고 하지 않단다.

요즘을 도시의 젊은 부부들 중에는 자제를 자식이라기보다는 숫제 상전이나 못대 높은 예인을 다루듯 하는 이들이 많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지랄하고 멋대로 청해진 사회 규범이나 질서를 흐트러뜨려도 극단한 관용과 온정만을 베풀 뿐, 꾸짖을 하거나 교정을 베풀 주는 데는 인색하다.

자극히 떠벌어지고 청성스럽게 성감을 받은 아이들은 집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는 무리함이 될 수 있고, 데 내아가 사회성 훈련의 부재와 규범의식 훈련의 결여로 기본저질을 모르는 파렴치(廉恥)하고 물상스(物上)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쉽고 힘 주어 말하는 심의화자들도 있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를 멋대로의 사회가 되고 어른들이 스스로는 잘못 꾸 막고 입 다루는 사회로 굳어진다면,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질서와 교양과 율리와 상식은 허물어질지도 모른다.

부모들이며 어른들이며 아이들의 정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용기 있는 꾸짖고 훈육을 다시 찾읍시다. 남의 자식 꾸짖기 전에 내 자식 먼저 꾸짖읍시다. 남의 자식 비로장머리 나무라기 전에 내 자식 먼저 제멋대로 못하게 '사랑의 때'라도 자주 주읍시다.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61入) 會長의 厚助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 朴炳勳(慶 - 46入) 서지학자

남은 연구 계속하기 위해 8월 파리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을 찾아 고종하고, 외규장각 도서관 찾아내 문화재 반환 운동의 불씨를 당긴 박명선(歷史 46-50) 박사가 그동안 빈틈 무명으로 악재였던 기운을 회복하여, 오는 8월 프랑스 파리로 돌아가 뜻다한 연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우리 중앙회와 역사교육과 동문은 지난해 12월 명문인하고, 건강회복을 기원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연구를 마치는 박명선 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우리 동창 모두가 기원한다.



■ 鄭元植(慶 - 48入) 전 국무총리

유한재단 이사장에 취임

정철식 전 국무총리(서울대 명예교수)가 6월 14일(월) 유한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유한재단은 유한양행 설립자인 고 유일한 박사가 전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으로 강사사업, 교육지원사업, 기술-문화-연구장려, 사회봉사사업, 사회복지 및 재해구호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 羅振剛(慶 - 58入) 인천시교육감

시·도 교육감협의회장에 추대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7월 20일(화)에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민선 교육감 시대의 첫 협의회장으로 합의를 주었다.



■ 卞柱仙(英 - 60入) 본회 회장

제101차 국제코리안 국제대회 총회

변주선 회장은 지난 2010년 6월 20일-6월 23일,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01차 국제 코리안 국제대회에 참석하였다. 일정 중 한국코리안 회원들을 위한 조찬회에는 3050여명의 강릉시 전 총재(영은강학재단 이사장도) 참석하였다.



■ 金信福(慶 - 64入) 전 서울대 부총장

임기 마지막 행정대학원 교수로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은 지난 7월 22일자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행정대학원 교수로 돌아갔다. 김 부총장은 이강무 총장과 함께 재임 중 서울대의 국제화, 법인화, 재정확충, 연구활동 진흥, 학사제도 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서울대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 吳地煥(慶 - 67入) 이화여대 교수

이화학술상 수여

이화여대는 교육학과 오옥환 교수에게 제9회 '이화학술상'을 수여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 문제와 여성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보인 공로다. 시상식은 5월 31일 대학 창립기념식 때 열렸다.



■ 羅廷奎(社 - 67入), 權台仙(英 - 74入)

서울시 교육청 인사위원회

지난 7월 22일(목)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회 새 위원에 최현실, 권대선 등문이 임명됐다. 인사위는 장학관·강사사 442명과 초·중·고 교원 4만 7,615명의 인사규정을 만들고, 승진·전보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현실(社 - 67入) 전 강릉대 총장, 전 교육과학기술부연대 공동 대표

권대선(英 - 74入)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편집인



최현실



권대선

■ 李文烈(慶 - 68入) 소설가

한국외대 초청 강연

소설가 이문열 동문은 6월 24일(목) 오후 4시 30분 한국외대 대학원 브릭스홀에서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소장 정기순의 초청으로 '나와 외국문학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했다.



■ 李秉植(英 - 72入) KBS정책기획본부장

불교연표인회장에 선출

이동식 KBS 정책기획본부장이 지난 6월 28일(월) 한국불교연표인회 운영위원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 **林英麗(麗 - 73인)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

**KB금융 사장에 선임**

KB금융지주는 신임사장에 임용될 전 재정경제부 차관을 선임했다. 강릉도 영월 출신으로 경기도, 서울대(국어교육학부)를 졸업한 일 사강 내장자는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몇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은 행정제도차장과 금융정책과장, 제2차관을 지냈다.



■ **李明淑(지구 - 75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개소식**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7월 21일(수)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개소식 및 청소년 미래 포럼을 가졌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청소년 관련 중장기 정책연구 및 의제 개발,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추진·관리되고 있는 청소년 사업의 체계적 분석과 평가, 정책자료 및 데이터 관리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 **安洋玉(禮 - 75인) 서울교대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당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34대 회장으로 안양옥(서울교대 교수) 동문이 6월 20일 당선됐다. 지난 11일부터 우편물 투표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선거에서 안 후보는 40.3%를 얻어, 34.2%를 득표한 이남교 후보를 앞섰다. 안 신임회장은 선거운동 기간 '교육 불신을



조강하고 교원 사기를 저하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시키겠다며 현 정부 교육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었다. 취임식은 7월 7일(수) 한국교총에서 있었다.

■ **金美蓮(蓮 - 80인)**

감사원 재정경제 감사국장으로 발령

■ **영어교육과 동문인사**

김갑중 동문68인 서울대 영어과교수 8월 정년퇴임

박영배 동문89인 국민대 영문과교수 8월 정년퇴임

**原稿 모집**

제168호 동창회보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발간시기: 매년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2. 원고미감: 발간 1개월 전
3. 회보형태: A4(국배판) 16면
4. 모집원고: ① 會料 同門會 소식  
② 各 市道支會 소식  
③ 各 동아리, 모임 소식  
④ 同門 個人 勳野, 人事, 慶弔事  
⑤ 詩, 隨想, 喜劇  
⑥ 동창회에 대한 건의사항 등.
5. 보낼 곳: (100-130)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비비엡3라 1807호  
E-mail : snueesa@hanmail.net

※ 가급적이면 기고자의 E-mail 주소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은 사 스 식 ■

**李杜鉉 母校 명예교수**

「이두현 기증 사진집」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李杜鉉(鉉 - 46인)** 교수의 사진 자료를 정리해 모두 여섯 권의 자료집을 발간했다.李교수는 국문학에서 시작해 민족학과 인류학을 두루 섭렵하시면서 어느 분야든 최고의 경지에서 직접 기을 제자는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그 분의 연구에서 배우고 익혀 우리나라 인문학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이번 발간한 자료집은 李교수께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직접 찍고 녹음하고 기록한 자료들을 국립문화재 연구소에 기증한 것을 정리 발간한 것이다.



동창회보 제168호: 鄭泰漢(漢 - 60인) 신흥중 교장을 數 - 78인으로 정정합니다.

## 2011년도 제3회 청관대상 후보자 추천

- 마감일자 : 2010년 12월 말
- 추천서 양식 : 동창회 홈페이지 참조
  - 청관대상후보추천서
  - 공적초서
  - 이력서(사집첨부)
  - 기타 공적 입증 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 상 : 2011년 2월 하순 정기총회에서 시상함
- 서류 보내실 곳 : (000-130)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바비영3차 1807호
- ※ 기타
  - 추천서 제출은 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본회 소정 양식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도 『송년의 밤』 행사 안내

- 날 짜 : 11월 29일(월) 18:00
- 장 소 : 엠버서더호텔(강릉동) 그랜드볼룸
- 행 사 : 화별 장기자랑 등
  - ① 본회 준비와 동문 개인 출연
  - ② 시중가의 절반 가격 이하로 경매함
  - ③ 동창회로 연락
- 회 비 : 30,000원
- ※ 기타
  - 참석예약 : 11월 10일까지
  - 예약 신청자 : 지정 좌석(화별) 배정함
  - 미 신청자 : 예비 테이블 배정
  - 장기자랑 신청 : 11월 20일까지
  - 신청 방법 : 전화 (02)6399-6500 / 팩스 (02)6399-6501

## 同窓會報 발송에 관한 案内

本 同窓會報는 每回 15,000부 정도를 인쇄 발송하고 있는 바, 住所不明 등으로 每回 500여부가 반송에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창회에서는 반송자의 주소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하고 있으나, 이는 人力 및 경비(1회 발송비 600만원 정도, 년간 2천여만원)의 낭비가 막심합니다.

이에 앞으로 주소 변경 未申告인과 會費 2회이상 未納인에게는 부득이 會報發送을 중단기로 하였습니다. 會報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점을 告知하시고 同窓會 홈페이지(www.smeas.or.kr)에 기재된 會報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보 제 186호 (2010.5.1제) P3에 게재된 朴壽弘(勳·61入) 전 선문대 교수의 勳解記事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 빌 게이츠 어머니가 남긴 가정교육의 중요성

高永福(體育·72)

한양전문학교 학장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미하에서 단기간에 경제발전이 성공하여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국가적 위상이 바뀐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 수립 6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례도 신보였다.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최하의 문맹률,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보여준 뛰어난 기술수준 등도 **비밀**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큰 어려움도 이거년 자랑스러운 경험에 있어 한국의 경제는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환금만능주의 사상과 극단적인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최근에는 가족의 해체, 빈부의 격차, 성폭력, 자살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한국병 즉 도덕과 인본불감증으로 인한 각종 사건과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많겠지만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가 낳은 물질만능주의 결과 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개개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정형성을 통한 부모의 가정교육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운 빌 게이츠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하여 남긴 편지를 통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빌 게이츠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가 아닙니다. 빌 게이츠의 여동생이 일 루벤중년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손자들을 위해 편지를 써달라고 요구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채 빌 게이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빌 게이츠 여동생 리비가 어머니의 장례식 후두사로 자신의 어린 두 아이들에게 할머니를 대신하여 쓴 편지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 할머니에게 손자들을 위하여 '할머니의 교훈'이라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그 부탁을 들어주실 수 없었구나.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하며 엄마가 대신 써보았다. 첫째 교훈: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모든 시계를 8분 앞뒤 맞추어라. 둘째 교훈: 테니스를 칠 때는 부드러운 '드롭샷' 서브가 중요하다. 할머니의 테니스 서브는 아주 부드러워서 네트를 겨우 넘기곤 했단다. 그런데 할머니의 시합 상대가 그 기회를 놓칠 새라 힘주어 공을 띄우자마자 순간 공이 선 밖으로 나가거나 네트에 걸리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지. 비록 할머니가 득점하는 순간이었다. 셋째 교훈: 아이들에게 화가 났을 때도 진화라 울리면 읽은 목소리로 받을 것. 넷째 교훈: 모든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대할 것. 다섯째 교훈: 자신의 배우자를 자랑스러워할 것. 여섯째 교훈: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임을 명심할 것. 일곱째 교훈: 평소 때 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 여덟째 교훈: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할 것. 아홉째 교훈: 아이들에게 '부리'와 '날개'를 함께 줄 것. 즉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와 부리를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자라래 자유롭게 놓아 주어야."

위 이야기는 항상 서로 사랑하는 부모의 가정교육이 자녀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주춧돌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교육을 통하여 훌륭한 가치관을 가정에서부터 심어 주었기에, 이는 그의 아들인 현재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에게도 영향을 주어 빌 게이츠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부자들의 기부를 촉구하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기부의 즐거움을 표현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자식들에게 아무 것도 남겨서는 안된다거나 자신을 위해 인간의 재산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 자신들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서 "그래서 기부의 즐거움을 자신들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게이츠-멜린다 부부는 2007년 13억달러(약 1조8600억원)를 비록 2008년 12월 말 현재 40억달러 상당의 재산 중 27억달러(69%)를 자신들이 세운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여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

자흥치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고 TV는 TV공장에서 만들지만 사람은 가정에서 만든다. 말하자면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으로도 같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불량 자동차가 길거리를 달리게 되고 TV 공장에서 불량TV를 만들게 되면 불량 TV가 가정에 배달되게 되듯이 가정에서 불량 사람을 만들게 되면 불량 남편, 불량 아내, 불량 청소년이 만들어지게 된다. 가정은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공장'이다. 가정의 주춧돌인 부모들은 '사람을 만드는 자'인 것이다. 빌 게이츠 가정일이 훌륭한 가정일 많아질 때 우리 대한민국도 진정한 선진국이 되리라 믿는다.

##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합시다.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6305 (변주선)

천재교육의 龍圖準 회장을 비롯한 회관건립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모금 총액은 약 31억원이 되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동문들께서는 예수의 과대에 재능치 마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관 건립 기금 신규 출연자 (2010. 5. 1.~7. 31.)

한성홍 (동·73) 200만원    안영숙 (가·59) 100만원    이기석 (지·59) 90만원    곡동순 (생·49) 10만원  
안용희 (영·49) 100만원

### 동창회 참여의 시작은 동창회비 납부로부터!

3만여 동문을 배출한 우리 사범대학 동창회는 서울대학교의 여러 단과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큰 동창회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 동문 선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광화문에 독자적인 동창회 건물을 소유하고, 그 수익으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여러 가지 동문 친목행사를 활발하게 집행해 왔으나, 근래에 이르러 재계발에 밀려서 회관을 잃고 수익이 줄었으며, 동창회 행사에 참여할마저 떨어져 동창회의 활동과 세가 위축 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본 동창회에서는 이번 36대를 동창회 부흥의 계기로 만들고자 여러가지 구상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동문 여러분께서도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동창회 회원들의 기본 의무인 "참여"와 "회비납부"를 실천하시어 동창회가 일익 번창하고 활성화되어 동문간 유대의 친목강화는 물론 모교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자료번호 : 7521964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21-910002-43405 (예금주 : 변주선)

#### 회비내역

동자출원금	100,000원 이상
동족 장	2,000,000원 이상
동부족 장	500,000원 이상
동갑 사	300,000원 이상
동상임이사	200,000원 이상
동이 사	50,000원 이상
동일반회비	20,000원 이상
동 명예회비(1회)	200,000원

### 회비 납부자 명단 (2010. 5. 1.~2010. 8. 2.)

#### 회장단·임원회비

신찬우(영48-고문)	10만원	변주선(영90-회장)	200만원
민홍기(지99-자문위원)	10만원	이희재(가60-감사)	30만원
김정철(고생80)	50만원	박정현(가4-총무부회장)	50만원

#### 평생회비(20만원)

안영숙(가·59)	우세홍(영·80)	황종희(영·69)
최만희(수·57)	김의수(영·80)	허이배(가·74)

#### 이사회비

(교무)	(역사)	(학행)
김성진(53) 10만원	이원순(49) 5만원	김기영(84) 5만원
박화영(54) 5만원	고준식(51) 5만원	신영재(86) 5만원
(국어)	(지리)	(영어)
이두현(49) 5만원	이기석(59) 5만원	이영태(87) 5만원
박찬규(59) 5만원	최만기(70) 5만원	(생물)
(영어)	(수학)	구성희(55) 5만원
김상규(60) 5만원	최홍진(49) 5만원	윤백환(55) 5만원
연대성(60) 5만원	(물리)	김종민(58) 5만원
(사회)	(체육)	(체육)
최영목(49) 5만원	신홍준(58) 5만원	박종달(47) 5만원
	이노연(58) 5만원	최기태(85) 5만원

## 일반회비

영어사	(국어)	김보규50	2만원	이광열50	2만원	이상석50	3만원	이광선50	2만원
재요래 250	2만원	김보준40	2만원	이경우50	2만원	이정민60	2만원	홍순희50	2만원
오신경 250	2만원	이영우40	2만원	황지훈50	2만원	안종호60	2만원	정신석50	2만원
오영숙 250	2만원	오윤영40	2만원	구양민50	3만원	김창원60	2만원	한정철50	2만원
최정숙 250	5만원	황기현40	3만원	김준환60	2만원	(영어)	(물리)	박희순60	2만원
(예과)	8만원50	2만원	이광복60	2만원	박정순50	3만원	김희준50	2만원	(가정)
시금수 250	2만원	이병선50	2만원	노갑기60	2만원	이홍준50	2만원	이관식50	2만원
주무순 250	2만원	박희화50	2만원	박종석70	2만원	이홍현50	2만원	조광재50	3만원
홍현사 250	2만원	윤은숙50	2만원	박현수70	3만원	이세현50	2만원	우상혁50	2만원
(교육)	이대규50	2만원	(국어)	임상순60	2만원	구지혁50	3만원	이기홍50	2만원
백인사 40	2만원	정기생50	2만원	임상순60	2만원	김동윤60	2만원	박일영60	2만원
김정진 50	2만원	홍유연50	2만원	김상현60	2만원	(지리)	김서현70	3만원	(체육)
신용국 50	3만원	고병철60	2만원	(물리)	홍서근50	2만원	(화학)	정승용40	2만원
방대근 60	2만원	이종철70	2만원	표진아60	2만원	박성호50	2만원	김삼욱40	2만원
이정진 70	2만원	김기순100	3만원	한유연60	3만원	국해웅60	2만원	정병태50	2만원
고성삼	(영어)	박규병70	2만원	신동철50	2만원	김태우50	2만원	김동현50	3만원
김태현 50	3만원	김기춘40	2만원	서진경50	2만원	이준석100	2만원	(생물)	박종서50
정민환 50	2만원	이희연40	2만원	성진재50	2만원	(수학)	김어순50	2만원	이정철50
고정환	최길순40	2만원	정형규50	2만원	홍정화50	2만원	박동근50	3만원	류영수80
백영배 50	2만원	김소신50	2만원	김정우50	2만원	박성순50	2만원	홍인7150	2만원

\* 기금, 회비 납부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동문 친목 바둑대회

1. 일 시: 2010년 11월 7일(日) 9:00

2. 장 소: 서울교육대학(서초동)

3. 경 기: 동창회

① 단제전 1팀 3명 총호선

- 구 성 ① 학과대표 (1명은 師大 재학생)  
 ② 직장대표 (중·고·대 또는 회사)  
 ③ 임의조 (친구 또는 동호인끼리)

② 개인전

- ① 최강전 - 재학생, 졸업생 총호선  
 ② A組戰 - 2~3급 총호선  
 ③ B組戰 - 4~5급 총호선  
 ④ C組戰 - 6~7급 총호선

\* 단제전과 개인전은 중복출전 불가  
 · 예선전은 리그, 본선은 로너먼트로

4. 시상은 단제전 및 개인전 조별로 1, 2, 3위

5. 참가비: 20,000원

6. 신청방법: 아래 계좌로 입금 후 주스, 생명, 학과, 입학년도, 전화, E-mail 등을  
 동창회로 연락바람.

(하나은행) 221-910158-88607 변주선

7. 참가신청마감: 10월 25일까지

단, 신청자가 특별히 많은組는 조기에 마감할 수 있음.

8. 참가자 전원에게中餐 및紀念품이 제공됨.

9. 주 최: 師範大學, 師範大學 同窓會

주 관: 師範大學 同窓會

10. 後 援: 후원인 구함

11. 연락처: 전 화) 6390-6500

FAX) 6390-6501

E-mail) snccas@hanmail.net

# 東亞日報

www.aj.com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인재방송**

신종플루를 이기는 자기주도학습법, 가정에서 공부하세요

## 인재방송

## 인천광역시인터넷교육방송

INCHEON INTERNET BROADCASTING SYSTEM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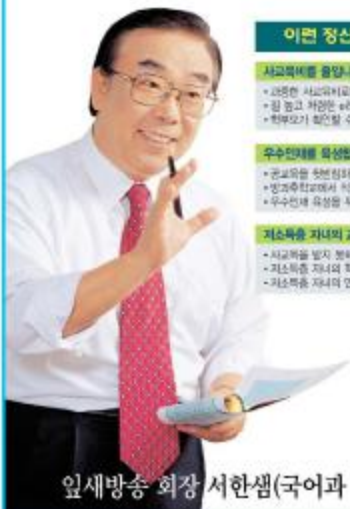


### 인재방송 '교육 한글날' 런칭 퍼포먼스

# 3만원의 행복

[www.ibse.co.kr](http://www.ibse.co.kr) 을 클릭하세요!!

1년 회비 3만원으로 초·중·고 사이버학원 커리큘럼에 의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과  
목을 1학기·2학기·방학 기간 등 일차게 공부합니다. (출결, 성적 관리)



인재방송 회장 서한샘(국어과 64)

### 어떤 정신으로 설립했습니다.

#### 사교육비를 줄입니다. 가정 경제를 살립니다.

- 고품질 사교육(교과서)의 80%
- 질 좋고 저렴한 44년 축적 교육 구축
-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생명의 가치

#### 우수인재를 육성합니다. 공교육을 뒷받침합니다.

- 공교육을 뒷받침하는 44년 축적 커리큘럼 운영
- 방과후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할식 인터넷강의
-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과서의 44년간의 교육과정 신장

#### 지식욕을 자녀의 교육 복지 정책을 실현합니다.

-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지식욕을 자녀의 교육 기회 제공
- 지식욕을 74.4% 학력 향상으로 반증과 다량방송 공급
- 지식욕을 자녀의 연평균 편지교사 학습 체제 구축

### 인재방송 1년 수업료는 3만원!!

한 달에 2,000원도 안되는 저렴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한국 초·중·고 1학기의 경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01. 기존의 질한 강의를 뛰어넘습니다!

44년 교육 노하우를 44년간의 44년간의 44년간

#### 02. 개인 원리에 중심한 맞춤형 강의를!

30여개 과목을 위한 44년 노하우를 44년간의 44년간

#### 03. IPTV 서비스를 구현하는 **유명 강사의 라이브 특강!**

44년 노하우를 44년간의 44년간의 44년간의 44년간

#### 04. 강의 특성을 살린 **노트 컴퓨터 새로운 교재!**

44년 노하우를 44년간의 44년간의 44년간의 44년간

#### 05. 사이버 학원 커리큘럼에 의한 **학습진행과 성적관리!**

44년 노하우를 44년간의 44년간의 44년간의 44년간

## 인재방송 사이버 커리큘럼

구분	학년	1학기	2학기	수강료 교육
초등 1학년	4~5학년	국·영·수·사·과 약 250원	국·영·수·사·과 약 250원	사·과·노·영·수 약 2,000원
중등 1학년	1~2학년	국·영·수·사·과 약 250원	국·영·수·사·과 약 250원	영·수·과·사·과 약 2,000원
고등 1학년	1~2학년	영어·수학·과학	영어·수학·과학	영어·수학·과학 약 2,000원

\* 교육료에 20%의 가산세(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 www.ibse.co.kr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인천광역시인터넷교육방송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5 우림라이온스밸리 A동 512호

상담문의 : (032) 715-7000